

고은 불교대하소설



작인가.
이 세계의 어느 곳은 고향이 아니고 타
향이 아닌 것을 방금 철위산 밑의 바다에
태어난 두 마리 고기 우식과 만우는 그들
의 작은 몸으로 헤엄쳐 왔다.
저쪽의 바다속에서 그들보다 몇곱절이
나 큰 덩치의 고기가 보였다. 우식과 만우
는 그 커다란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도 모
르고 그들 자신조차 무슨 고기인지 모르
는 그 이름없는 바다에서 문득 공포에 떠
는 일로 그곳의 첫 생활을 시작하였다.
“무섭다!” 라고 우식이 눈을 커다랗게
펼쳐냈다. 그러자 만우도 “나도 무섭다!”
라고 우식에게 바짝 다가갔다.
그러자 벌써 그들의 눈 앞에 다가온 커
다란 몸통머리의 고기가 말하였다.
“괜찮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
희들이나 헤치는 고기가 아니란다. 그보
다는 방금 이 바다에 온 너희들에게
이 바다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일과 이 바다 건너 다른 산 가까이
에 당분간 너희들이 살 곳으로
데려다주려고 온 것이란다.”

“수미산? 하하 수미산이라... 그까짓 티
끌만도 못한 곳에 가려느냐?”
.....
“됐다. 가고 싶거든 어서 가라... 그
런데 너희들이 그 수미산인가 뒷동산인가
하는대를 빨리 가고 싶다면 다른 하나의

것이였다.
두 마리의 고기 우식과 만우에게 처음
에는 그 어둠과 숨막힐듯한 큰 고기의 내
장이 무척이나 무서운 곳이었으나 그 내
장에는 아주 따뜻한 방이 있었고 그 방안
은 마치 안광(安光)과 같은 파란 빛과 꽃

나도 없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머물고 있
는 것은 내 뱃속이다. 너희들이 꿈 꾸이
아니란다. ... 그런데 너희들이 그토록 좋
아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 너희들의 즐거
움이 바로 내 공덕이 아니더냐.”
“아아.”
“그런데 말이다. ... 잠차 너희들이 다다
를 때는 내 뱃속 따위가 아니라 그야말로
본래 그대로의 천진(天真)이 흐를 즐거운
바(鰓)인 그곳이란다. ... 그러나 수미산
꼭대기나 그 꼭대기 위의 드넓은 허공에
색계 무색계도 다 티끌이란 말이지.”
“아아.”
“하하 너희들이 벌써 환희의 마음이 일
어나나보다... 좋은 말이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안성맞춤인 일이 사
실은 우주 안의 큰 일이라네. 어서 가자.”
바다 속의 큰 고기는 다른 고기의 맞친
배나 빠르게 헤엄쳐가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헤엄친다기보다 날아간다고
하는 것이 옳았다.

“저희에게
갈곳이 있습니다
수미산으로...”
“그까짓 티끌만도
못한곳에 가려느냐”

그들의 여행



“자 나랑 가보자.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
기 때문에 나는 이따금 쉬
면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
다. 어서 헤엄쳐 가자구나.”
두 마리의 작은 고기는
그때야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힘껏 꼬리를 치며
헤엄쳐 갔다. 가는 동안 배
가 고르면 바다 밑에 얼마
지 있는 연산호나 흑산호 숲
에서 먹거리를 찾았다.
얼마나 헤엄쳐 갔을까. 바
다속에 어떤 바위가 나타났
다.
그들은 특별히 가야할 길이
없었으므로 습사리 방향을 잡지
못하였다. 그때 큰 고기가 뒤쪽에서
말하였다.
“같은 연체나 특별히 가야한다. 그러
나 길이 막히면 한동안 멈춰 당황하는 일
이 없어야 한다. 마치 너희들을 가로막고
있는 저 바위처럼 아주 당연하게...”
.....
“나한테 두가지 방편이 있다.”
그때야야 만우가 물었다.

가거라
가거라
용궁이 나타나도 아랑곳하
지 말고
가거라
용궁 따위 수제 군더더기
.....
큰 고기가 그 시간과 공
간을 어떻게 건넌지 모
르게 두 마리 고기 우식과
만우는 철위산 바다에서 물
속 바랑의 한 골짜기를 수미
산 방향으로 첫번째 산줄기
가까운 바다에 이르렀다.
그동안 일곱산줄기도 수미
산보다는 못하지만 물 위로 1
만유선이 넘고 물밑으로 8만유
선이나 넘게 그 규모가 어마어
마한 것이었다. 그런 일곱산줄기 사이
의 드넓은 곳을 작은 여덟바다의 넓
이나 깊이 또한 사람의 섬으로는 헤아
릴 수 없는 규모인데 바로 그 바다 속에
는 찬란한 용궁이 있고 그 용궁이 주재하
는 작은 용궁들이 여기저기에 있어서 바
다 속의 세계를 본래 그대로 다스리고 있
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권세를 휘두

른 고기가 두 마리의 작은 고기를 돕는
일이였다.
“자 이제 됐다. 나오너라” 라고 큰 고기
의 내장이 움직이며 그 속에 있던 그들을
조금씩 빨아내는 것이였다. 마지막에 큰
고기의 입안에 있는 납카로운 이빨에 비
늘 빛개가 떨어져나가는 사고는 있었으나,
마치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
들은 큰 고기의 입 밖으로 토해져 나왔다.
“자 너희들의 길을 가거라. 나는 돌아가
겠다” 라고 큰 고기가 말하였다. 그리고
물건을 다 팔고 가는 출가당한 짐사문처
럼 뒤돌아 가는 것이였다.
두 마리의 고기 우식과 만우는 마치 고
맷다는 인사치레도 할 겨를이 없었다. 큰
고기는 마치 사바세계 삼부주의 아주 잘
달라는 말을 재촉해서 삼사자에 가물거리
는 곳으로 사라지는 기사처럼 사라지고
만 것이다.
두 마리의 고기 우식과 만우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런 작별이야말로 이 세계의
이치함을 문득 깨달을 수 있었다. 아마도
인간이나 천신보다도 축생족의 중생들이
그런 작별에 훨씬 익숙한 것인지 모른다.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거의 무심
(無心)의 상태인 그 짐승들의 작별이야말
로 얼마나 깨끗한 것인가.
대항해는 동서남북의 4주(四洲)를 마
치 네개의 섬으로 퍼온 커다란 판 불바
다인데 그 크기가 철위산에서 니만달라
산(尼漫達羅山)까지 32만2천유선이나 된
다.
그런 먼먼 먼 거리를 큰 고기의 덕택으

머
질이 지났을까. 아니면 몇달이
지났을까.
우식과 만우의 시선은 거친
파도머리에 부딪쳐 가라앉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하는 동안 고기들이 물러
와서 한 점씩 물어먹히는 동안에도 그들의
외식(外識)은 하늘 높이 올라가 있으면서
그 자신의 시선이 조금씩 땅가지를 것을
남의 일처럼 내려다 볼 수 있었다.
그런 외식(外識)의 의식이 몇번 되풀이된
뒤로는 아예 이 세상의 바다 따위와는 동
떨어진 하늘의 허공계로 사라진 뒤 제8식
이와야식의 투명한 무형체만으로 떠돌던
시간을 마감한 뒤 수미산으로부터 가장
먼 골짜기의 외벽인 철위산의 그 무쇠덩어
리 못처럼 남머리지 밑의 바다에 내려앉
았다. 이른바 대항해(大航海)였다.
어떤 필라도 없이 그 바다의 두 마리
고기 태어났다. 어미도 없었고 막 태어
난 자취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
에서 살아온 것처럼 낯설지도 않았다.
히기야 방금 태어난 그 순결한 본성은
수많은 전생대생의 어떤 기억을 문득 피
울릴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 세
계의 끔찍머리와도 같은 그곳 철위산 밑
의 바다조차도 아득히 지난 생의 한 터전
이었음을 틀림없다.
뜻 중생이란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어디까지 않은 곳이 없는 생명들이 아닌
가. 그러므로 뜻 중생들이란 어느 한 곳만
으로 고향을 삼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큰고기 덕택에 니만달라까지 온 두마리 물고기 우식과 만우는 ...

“두가지 방편이란 무엇입니까?”
큰 고기가 입을 뿜어주며 물었다.
“하나는 여기서 저 바랑이 물러서서 길
을 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란다.”
“저 바랑이 어떻게 물러설까요?”
“1걸 안에는 술을 물러시켰지...”
우식이 나섰다.
“저희들에게는... 이제 생각이 남나
만... 갈 곳이 있습니다.”
“갈 곳이라? 그곳이 어디인가?”
우식이 돌아나지 얼마 되지않는 비늘들
을 움직이며 단호하게 말하였다.
“수미산입니다.”

방편이 있다.”
“네?”
“내가 너희들을 삼켜서 내 뱃속에 집
어넣고 내가 가는 속도로 팔겨두면 되
니라.”
만우가 더럭 겁이 나 눈이 커졌다.
그때 큰 고기가 말하였다.
“안심하여라. 너희들이나 잡아먹을 내가
아니란다. 나는 다만 내 뱃속에 너희들을
넣었다가 빨아들 터이니깐.”
이 말이 나오자마자 큰 고기는 어떤 생
각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우식과 만우
를 덤핑 입 안에 넣어 뱃속에 내려보내는

항기가 채워져 있었다.
“더
구나 그 방의 자궁(子宮)과도 같
은 부드러운 벽은 바깥의 소
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로 되어있
어서 큰 고기가 말하는 소리와
바다 깊은 곳의 다른 고기들이 헤엄치며
말하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었다.
“아 여기는 공속이구나.”
“그렇구나. 이 공이 깨지 않았으면 좋
겠다.”
그러나 부드러운 방의 벽으로 울려오는
큰 고기의 말이 들려왔다.
“공이러면 그 무엇도 꿈 아닌 것이 하

르는 일이나 어떤 일을 제지하는 일 따
위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주의 하나인 물
의 세계를 그 세계의 수명이 다할 때까
지 그대로 있게 하는 그런 힘의 발원지
이다.
작은 고기 우식과 만우는 큰 고기의 배
려로 그런 용궁나들이를 그만 두고 그들
이 갈 곳에 조금이라도 먼저 가도록 되어
있었다.
용궁이야 앞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다.
말하자면 그들이 살 곳이 아닌 철위산
밑의 대항해를 쉽게 건너는 일이 그곳의

로 니만달라산 부근에까지 건너올 수 있
었으니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행을 피할
수 있었단가. 그런 일도 그저 이루어진 것
이 아니라 우식과 만우가 삼부주 무덤
에서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 어떤 괴부
리기도 하지 않고 부지런한 바가 그런 산
과(山果)를 맺은 셈이다.
철위산 밑에는 일곱 골(七金山) 가운
데 가장 밖에 있는 그 니만달라에서 두
마리의 고기 우식과 만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림 · 조항숙

보리수
취급 | 각종수입항, 영주 | 일체
품목 | 불교약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미상가 구84호
전화: 778-5345, 팩스: 777-1917

사무장(관리인)구직
■ 43세(고졸) 불교교양대 졸업
■ 면허종소지, 지방근무경험
■ 평소에 보람하는 마음으로 사할
사무 및 관리 업무를 하고싶습니다
연락처 : 0343-94-3237
서원 합장

氣 치료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무릎, 부인병, 전신
마비, 수족발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
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
● 불사후 이른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
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
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최고의 효도 선물 - 파-워-봉 요법
보건복지부 허가 제558호 보건복지부 품목허가 제1호
■ 파-워-봉 요법은 전혀 피부를 찌르지 않고, 압통점
(경혈)을 자극하여, 통증을 조절하고 건강을 증진시
키는 신속하고 획기적인 통양의하방법입니다.
■ 파-워-봉 요법은 머리, 허리, 어깨, 목, 관절, 팔,
다리, 무릎 등 불편한 곳에 대고 지그시 눌러주면
즉각에서 편안해지는 느낌을 체험하실수 있습니다.
■ 허리, 무릎, 관절 때문에 고생하시니까?
<반영구적제품>
<보급품 중합세트> 150,000원
■ 파-워-봉 요법은
* 아기가 성하게 아프십니까?
* 목덜미가 항상 뻐근하십니까?
* 어깨가 몹시 아프고 팔이 뒤로
안올라갑니다?
* 손끝과 발이 저리십니까?
* 허리가 몹시 아프십니까?
* 팔꿈치가 몹시 아프십니까?
* 무릎에 힘이 생기고 아프십니까?
* 다리가 차가워 멎어 있습니까?
* 입지 팔가닥이 많이 아프십니까?
* 얼굴이 달아오르고 어지럽습니까?
* 눈 피곤하고 의욕이 없습니까?
* 목부가 항상 두부룩하고 몸이
무겁습니까?
* 잔입선으로 고생하십니까?
* 치료를 받아도 제법 하니까?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신남 · 선녀궁합, 학생적성
☎ 738-2045, 2046
현대 불교 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사 절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법당 1동, 상선각1동, 비록님,
요사채2동(현대식), 사용평수 : 1300평
■ 가격 : 1억2천(가격절충가능)
연락처 : 0576)862-0674

취업을 원합니다
경력 25년(1중보통)
중고베스타 12인승 소유
지역에 상관없이 일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0523-81-3200
김호준 합장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평수 : 36평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 비품대 가격절충가능
연락처 : 051)514-0331~2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리 393-1
대원사
전화 : 0331)262-0606

피해성 관절염 전문
좌 골 신경 통
(3회절)
張三泳 합장
543 / 773 / 306

탁자, 담집, 법상, 문좌, 불교조각
주요불사법적
* 일진(제인자) 대지공전 법상 경설
* 화형사(대형자) 대웅전 주미단 담집 문좌
* 서종(대형자) 법상 주미단 문좌 목인함
* 승상(법상사) 대웅전 문좌
* 화형(법상사) 대웅전 법상 문좌
* 중부(상선사) 대웅전 주미단 법상 경설
* 마인(천관사) 대웅전 문좌 담집
* 포진(화형사) 대웅전 문좌 담집
* 담양(천관사) 대웅전 주미단담집경설
* 서종(화형사) 화관 문좌, 그외 다수 작품
대전(전승)공예사
팩스 011-282-4609
저택 02-288-4609
공방 0345-571-9538
호출 012-210-1401
충남대 합장